

삼국시대 鍔帶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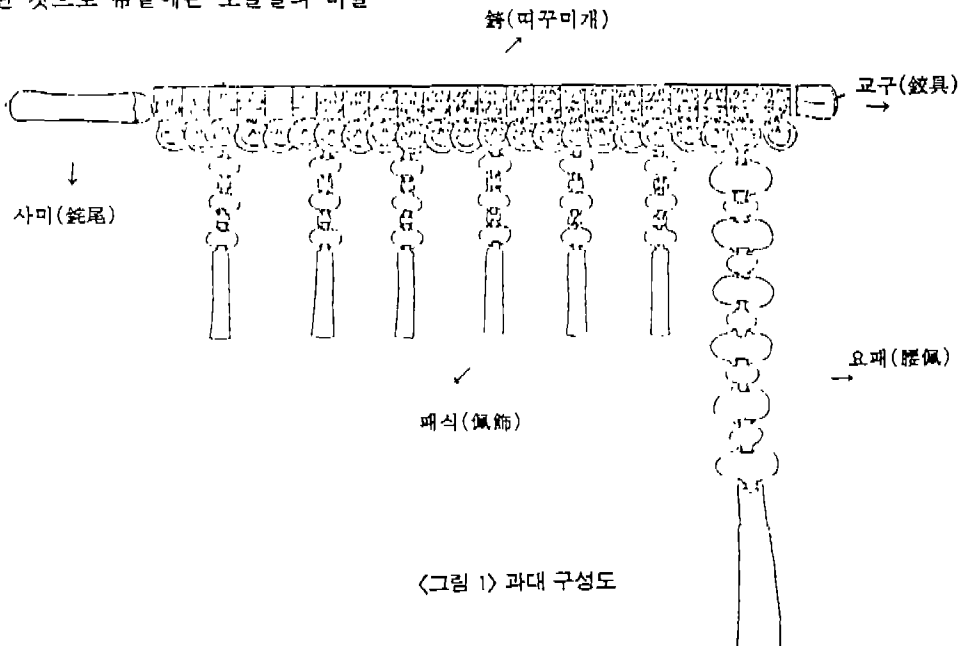
기전여자대학 전통복식과
전임강사 김 문 숙

目 次	
I. 서 론	V. 과대의 문양과 제작방법
II. 과(띠꾸미개)의 유형	VI. 결 론
III. 요패와 패식	참고문헌
IV. 교구와 사미	ABSTRACT

I. 서 론

삼국시대의 과대는 포백이나 가죽으로 된 帶모양 바탕에 금이나 은, 금동 등으로 만든 鍔를 붙이고 과에 달린 수하부 또는 고리(環)에 각종 패식물¹⁾을 늘어뜨린 것으로 帶끝에는 오늘날의 버클

에 해당하는 교구(鉸具)가 있고 그 반대편에는 사미(銚尾)가 있다(그림 1). 과대를 패용했을 때의 모습은 교구와 사미가 맞물려 허리 앞부분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교구의 針이 현대의 구멍속으로 고정되고 사미는 아래쪽으로 늘어지게 된다.



<그림 1> 과대 구성도

1) 패식물 중 길이가 긴 대형의 것을 특별히 요패라 명명하고 있지만 각종 보고서에는 耳杯形 판이 교대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크기에 관계없이 요패라 부르기도 한다.

현재까지 출토된 대부분의 삼국시대 과대는 피장자의 허리 부근에서 착용된 채로 발견되고 있어 이들이 실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삼국시대의 과대는 당시에 착용되던 긴 저고리를 여미는 기능을 하는 단순한 띠에 장식적·사회적인 의미가 포함되면서 문양을 투조한 금속을 사용하거나 각종 패식을 수하시키는 등 화려하게 발전하였다.

삼국시대의 과대는 삼국의 전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어 고대 우리나라의 대금구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으며 특히 신라·가야 지역에서 다수 출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대 우리나라 복식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과대의 연구를 보다 체계화하기 위하여 삼국시대의 고분에서 출토된 과대를 대상으로 각 과대를 과에 투조되거나 타출된 문양에 따라 유형화하였으며 그밖에 과대의 구성요소인 요패와 패식, 사미와 교구의 유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대 우리나라 복식에서 저고리나 포를 여미는 실용적인 기능 외에 계급구분의 기능까지 담당하던 과대를 체계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角帶 등의 후대의 帶의 연구에도 밑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삼국시대 고분 중 과대가 출토된 고분 40기를 연구범위로 하였다²⁾〈표 1〉.

〈표 1〉 과대출토 고분 명칭

고 분 명	고 분 명
〈신라·가야지역〉	황남리 110호분
경북 성주군 성산동 1호분	황오리 1호분
경북 달성군 달서면 37호분	황오리 33호분
경북 달성군 달서면 51호분	황오리 4호분
경북 달성군 달서면 55호분	황오리 14호분
경북 달성군 달서면 59호분	경주 인왕동 20호분
경북 달성군 달서면 34호분	창녕 계성 A지구 1호분
경북 경주군 내동면 진문리고분	계남리 1호분
구암동 56호분	김해 예안리 49호분
양산 부부총	의성탈리고분
금관총	고령 지산동39호분
금조총	
식리총	〈백제지역〉
금령총	공주 송산리 1호분
천마총	공주 송산리 2호분
서릉총	무녕왕릉
황남대총 북분	
황남대총 남분	〈고구려지역〉
황남리 파괴고분	집안 전산자 152호분
황남리 109호분	집안 통구 873호분
황남리 82호분	평남 대동군 자족면 호남리 사신총

2) 과대유형분류시 사용한 고분의 편년은 김원룡, [한국 고고학개설], pp.317~210. 및 윤세영, "고신라·가야고분의 편년에 관하여 -고분출토판도를 중심으로-" 참조하였다.

II. 鏹(띠꾸미개)의 유형

삼국시대 출토 과대를 구성하고 있는 鏹은 과판부와 수하부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경우 과판부를 연장하거나 따로 금판의 고리를 만들어 붙여 수하부를 걸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과판부와 수하부에는 삼엽문이나 탈화용문과 같은 각종 문양이 투조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삼국시대 출토 과대의 분석에 의해 과의 유형을 크게 I, II, III유형의 세 郡으로 분류하였으며, I 유형은 다시 4군으로, II 유형은 2군으로 세분화하였다.

1. I 유형

方形 과판에 심엽형 수하부가 달린 유형으로, 과판과 수하부에 투조된 문양의 형태에 따라 4군으로 다시 세분화하였다.

(1) I-1 유형

I 유형의 기준이 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方形 과판에 心葉形 수하부가 달린 형태이며 단순화된 인동당초문양이 과판부와 수하부에 투조되어 있다. 이 유형은 출토 예가 I 유형 중에서 가장 많고 신라·가야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다<표 2>.

<표 2> I-1 유형 鏹출토 고분

고 분 명	고 분 명
경주 인왕동 20호분	양산 부부총
경북 성산동 1호분	금관총
경북 달성군 34호분	천마총
경북 달성군 51호분	계성리 A지구 1호분
경북 달성군 59호분	계남리 1호분
황오리 33호분	의성탑리고분
황오리 14호분	창녕교동 고분
황남대총 남분	구암동 56호분
황남대총 북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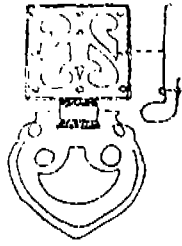
<그림 2>는 중기 고분으로 편년되고 있는 황남대총 북분 출토 금계 과대로서 方形 과판에 투조된 당초문의 형태가 같은 유형에 속하는 전기고분의 것보다는 얇아졌지만 한 계통에 속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특징적인 것은 심엽형 수하부 곳곳에 구멍을 내어 그 사이에 꼬은 금선을 삽입하여 영락을 매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형태 외에 약간의 변형을 가한 형태도 이 유형에 포함시켰다<그림 3>.

I-1 유형은 삼국시대 전 시대에 걸쳐 출토되고 있는 보편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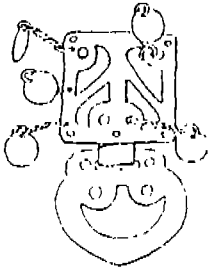


황남대총 북분 출토 금계과대

<그림 2> I-1 유형 과



(1) 금관총 출토 은제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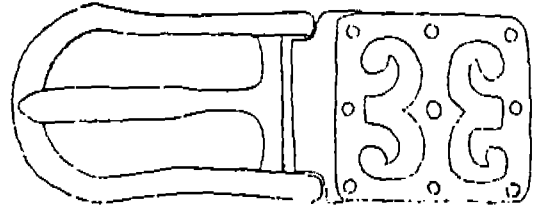
(2) 금령총 출토 금제과대

<그림 3> I-1 유형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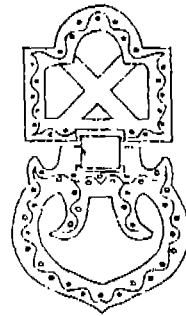
(2) I-2 유형

심엽형 수하부에 투조된 문양은 I-1 유형과 같으나 방형 과판에 투조된 문양이 변형되어 있는 형이다. 이 유형은 비교적 전기 고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경주 소재 황남동 110호분과 황남리 82호분에서 출토되었다(그림 4). 황남동 110호분에서 출토된 과대는 금판식한 것으로 과판의 형태가 약간 변형되었고 문양의 주위를 따라 波狀點列文이 시달되어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황남리 82호분 출

토 은제과대는 수하부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며 변형된 당초문이 투조되어 있다.



(1) 황남리 82호분 은제과대



(2) 황남동 110호분 출토 금판식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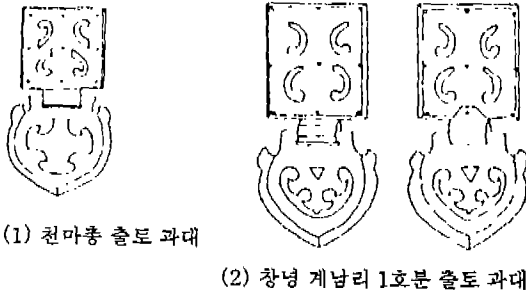
<그림 4> I-2 유형 과

(3) I-3 유형

방형 과판에 투조된 문양은 I-1 유형과 같으나 심엽형 수하부에 투조된 문양이 변형되어 있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신라지역의 천마총과 가야지역인 창녕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다(표 3, 그림 5 참조).

<표 3> I-3 유형 과출토 고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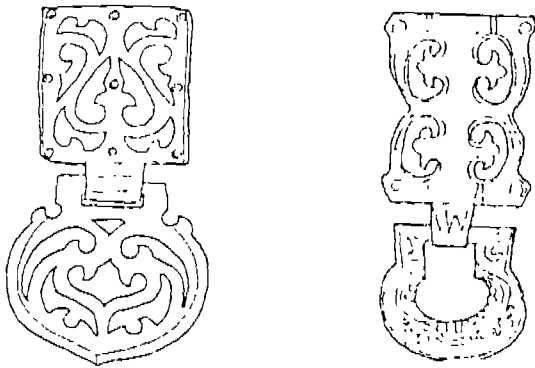
고 분 명	고 분 명
천마총	계남리 1호분
금령총	창녕 교동 1호분
노서리 138호분	



<그림 5> I-3 유형 과

<표 4> I-4 유형 과출토 고분

고 분 명	고 분 명
천마총	서봉총
금조총	송산리 1호분
금관총	집안 전산자 152호분



(1) 금조총 은제과대 (2) 집안 전산자 152호분 출토 과대

<그림 6> I-4 유형 과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백제 지역인 송산리 1호분 출토 과대와 금관총 출토 과대의 과에 투조된 문양이 동일하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과대의 전파경로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II 유형

역심엽형 과판에 원환의 수하부가 달린 유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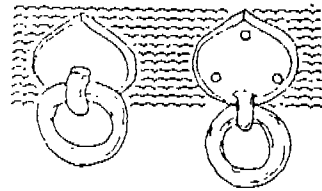
3) 原山叔人是 진문리 고분 출토 銀制環 9개가 漢6朝 말기의 九環帶, 十三環帶 착용에 대한 기록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다.

原山叔人. [漢六朝의 服飾], p.137.

(4) I-4 유형

방형과판과 심엽형 수하부에 투조된 문양이 모두 I-1 유형의 기본문양에서 변형되어 있는 유형이다. I-4 유형은 삼국에서 고루 출토되고 있는데<표 4>, 출토고분은 고구려 지역인 집안 우산 전산자 152호분과 공주 송산리 1호분, 신라의 경주지역인 천마총과 금조총, 금관총이다<그림 6>.

다. 이 유형 역시 I-1 유형과 마찬가지로 출토예가 많고 시기의 구분없이 백제지역과 신라·가야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다<표 5>. <그림 7>은 경상북도 진문리 고분 출토 은제 심엽형 과대³⁾이다. 이러한 역심엽형 과의 기본형 외에 금관총에서는 異形 심엽형 과가 출토되고 있어 II 유형에도 변형이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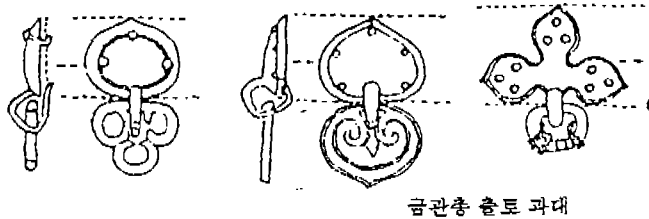


진문리 고분 출토 과대

<그림 7> II 유형 과

<표 5> II유형 과출토 고분

고 분 명	고 분 명
황남대총	노서리 138호분
금관총	창녕 계남리 1호분
금령총	경북 달성군 37호분
황남동 110호분	진문리고분
황남리 109호분	전북 운학리고분
황오리 4호분	



금관총 출토 과대

<그림 8> II유형 과

3. III유형

I유형과 II유형에 속하지 않는 유형을 III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즉 앞의 유형에 비해 사용된 문양이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거나 獸面形과 같은 異形 문양이 사용된 경우를 III유형으로 분류하였다.

(1) III-1 유형

방형 과판이나 수하부에 脫化龍文 또는 복잡한

당초문이라고 볼 수 있는 문양이 투조되어 있는 유형이다. 삼국 지역 모두에서 출토되고 있고<표 6> 특징적인 것은 고구려 지역출토 과대 중 집안 전산자 152호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이 유형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림 9>는 전북 운학리 출토 철지 은장도금과대로서 복잡한 탈화용문이 투조되어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황남대총 남문 출토 은제 과대에는 황남동 110호분 과대에서와 같이 문양의 주위를 따라 點列文이 배열되어 있다.

<표 6> III-1 유형 과출토 고분

고 분 명	고 분 명
집안동구 873호분	경주 황오리 4호분
평남호남리 사신총	황남대총남부
전북 운학리 고분	



전북 운학리 출토 철지 은장도금과대

<그림 9> III-1 유형 과

(2) III-2 유형

III-2 유형은 이상에서 살펴본 유형에 속하지 않는 異形 과에 해당한다. 고구려 지역을 제외한 백제와 가야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다. 먼저 鬼面形을 타출한 송산리 2호분과, 고령 지산동 39호분 출

토 과가 있고 타원형의 큰 과판과 작은 과판이 교대<사진 1-1>가 있다.
대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인 무녕왕릉 출토 은제과



<사진 1-1> 무녕왕릉 출토 銀製鐙帶(Ⅲ-2 유형 과)

Ⅲ. 요패(腰佩)와 패식(佩飾)

1. 요패의 유형

요패는 여러 패식 중에서 길이가 가장 긴 대형의 것을 말한다. 대부분 타원형의 위와 아래에 귀가 달린 대형판¹⁾과 方形 또는 타원형의 소형판을 교대로 배열하여 경첩식으로 연결한 것이며 끝에는 대개 長圭形 금속판이 달려 있다. 이러한 기본형 외에 무녕왕릉과 천마총에서는 跗形 요패가 발견되고 있다.

2. 패식의 종류 및 기원

패식이란 대형 요패 외에 과대에 수하되어 있는 각종 장식물로서 그 끝에는 여러가지 모양의 금속

장식들이 달려 있다. 이들은 요패와 같이 이배형 판이 교대로 연결되어 있는 패식의 끝에 고리로써 달리기도 하고 금사슬 사이사이에 구형 장식이 달린 형태의 연결부 끝에 매달리기도 하며, 막대형 금판의 연결 밑에 고리로 수하되기도 한다. 패식류는 출토 당시 과판부에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떨어진 채 발견되고 있어 위에 다시 끈 같은 것을 달아 과판부와 연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⁵⁾

과대에 패식을 수하했다는 기록은 『翰苑』卷13 高麗條에 ‘銀帶에 숫돌과 五刀子를 찻다’는 기록이 있고,⁶⁾ 중국에서도 각종 패식을 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⁷⁾ 宋代 沈括의 『夢溪筆談』卷1에 따르면 패식은 胡服에서 기원한다는 기록이 있고,⁸⁾ 호복에서 채용된 패식의 풍습은 唐代에 성행하여 結纆7事⁹⁾라 불리기도 했다. 한편 唐代에 성행했던 跗形7事는 魚袋¹⁰⁾ 패용이 대신하게 된다.

1) 보통 耳杯形이라고 부르며 김원용은 漢代의 魚杯形으로, 청동이나 漆魚杯의 모양이거나 초원의 유목민들이 사용한 컵의 모양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Kim Won-Yong, [Art & Archaeology of Ancient Korea], 내광출판사, 1986, p.356.

5)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황남대총 북분 발굴조사보고서], 1986, p.60.

6) [翰苑]권13 고려조, “佩刀纆而見等威 金珪以明貴賤”

7) [禮記]제7책 권27, [內則]제12之1

8) 沈括, [夢溪筆談]卷之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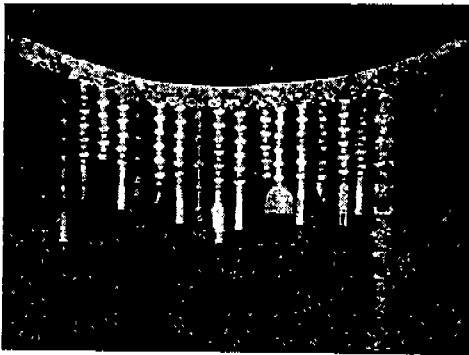
9) 跗形7事란 장도, 刀子(短刀), 숫돌, 수건, 算袋, 향, 履屐, 부싯돌주머니 등을 말한다.

原田淑人, [唐代の服飾], p.65.

10) 魚符를 넣는 주머니이다. 어부는 좌우 二形으로 만들어 하나는 조짐에, 하나는 몸에 지녔다고 한다.

현재 출토되고 있는 패식의 경우, 그 장식품이 장식화·상징화되어 실용적 물건을 대달았다고 보다는 신분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심미적·장식적 기능으로 치우쳐져 있다. 따라서 과대에 수하되었던 각종 패식류는 실용적 목적으로 달았던 물건들을 상징하는 것 외에 순수하게 장식적인 목적으로 도안된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패식류의 밑에 수하되어 있는 각종 장식 금구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것이 상징하는 바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사진 2).



〈사진 2〉 금관총 출토 금제과대

(1) 長方形 금판

가장 많이 출토되고 있는 유형으로 보통 耳杯形 판이 교대로 연결된 판 밑에 경첩식으로 수하되어 있다. 김원룡은 장방형 금판을 숫돌의 모방이라고 말하고 있으나¹¹⁾ 실제 숫돌을 상징하는 장식품이 같은 과대의 패식들 중에서 출토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한 장식적 기능으로 고안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2) 曲玉類

곡옥류에는 금제곡옥도 있고 금모를 씌운 琉璃質의 곡옥도 있다. 출토된 곡옥류 중에서 특이한

것은 금령총 출토 곡옥으로 파리옥 2개에 금모를 씌워 연결한 독특하고 화려한 형태를 하고 있다.

(3) 魚形 장식

魚形 장식에는 2 종류가 있는데, 어형으로 금판을 오려낸 후 뒷면에서 가장자리나 전면에 비늘문양을 타출로 표현한 형태와 투조된 魚形 패식이 있다. 이 魚形 장식은 唐代 조정에 출입하던 관리들이 패용하던 魚符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4) 죽집계형 장식

출토되고 있는 것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 금관총과 천마총, 황남대총 남분에서 출토되었다.

(5) 숫돌 頭部 장식

실제 숫돌 대신 숫돌을 상징하는 木制를 삼입하였기 때문에 숫돌 부분은 남아 있지 않고 그 머리 부분의 장식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頭部장식 전면에 복잡한 문양이 투조되어 있고 입체 투조장식 사이로 무엇인가를 끼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천마총에서는 별도의 頭部 장식은 없지만 사각형 목편을 얇은 금판으로 감싼 것으로 숫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장식품이 출토되고 있다.

(6) 藥籠形 장식

이는 열매처럼 생긴 파리제 형태를 금망 속에 넣은 형이고, 천마총 출토 藥籠形은 투조 금판을 상하 2部로 합친 모양이다. 약통이 장식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7) 도장주머니 形

단순한 8각체 형태이다. 뚜껑이 있어 개폐가 가능하며 안에는 木質이 남아있다. 이 형태를 濱田 등은 도장통으로 보고 있고¹²⁾ 김원룡은 針筒으로

11) 김원룡, 『한국미술사』, 범문사, 1968, p.136.

12) 濱田雄作·梅原末治, 『慶州金冠塚及其寶物』, pp.137~138.

보고있다.¹³⁾

(8) 투조금판 장식물

方形 금판의 윗모서리 부분을 잘라 낸 형태의 투조 금판이다. 금관총 출토 투조금판에 투조된 문양은 동물문을 변형시킨 것으로 보이며¹⁴⁾ 표리 2장의 판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어 발굴 당시에는 織布類가 있던 흔적이 확인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양지만 투조판 사이에 색이 있는 직물을 끼웠다면 굉장히 화려한 장식물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9) 粧刀形 장식물

황남대총 북분에서 출토된 금장도가 있으며 원통형 칼집 속에 칼이 들어 있고 손잡이 부분이 짧아 실제 사용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칼집 측면에는 副刀가 달려있다.¹⁵⁾

(10) 金針

황남대총 북분에서 출토되었으며 원통 상단에 반구형의 뚜껑을 씌우고 그 아래의 안에서 밖으로 금침 13개가 매달려 있다. 실제 바늘을 갖고 다니던 것이 장식화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11) 연필형 장식물

금령총에서 2개가 출토되었으며 같은 형태이다. 은사슬에 매달려 있고 주요 부분은 식물성 물질로 되어 있었는지 현재 흔적만 남아 있고 그 표면에는 금은선이 교대로 나선상으로 감겨 있다.

3. 요패와 패식의 착용

과대에 패식이 수하되어 있는 窠形으로 출토된 과대는 모두 5쌍이다. 이 중 교란되지 않은 채 피장자가 착용한 상태로 발견되어 수하된 요패와 패

식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은 황남대총 북분 출토 금제과대이다. 출토 당시 패식물의 순서를 보면 띠고리를 중심으로 왼쪽 앞에는 金帽曲玉→金制曲玉→長方形金板→魚形金板이, 오른쪽 앞에는 金制曲玉→長方形金板→大形金板이 위치하고 몸 뒤편에서 왼쪽 앞의 어형금판 옆으로 이어지는 부분에는 金粧刀→장방형금판→투조刀子柄形금판이, 오른쪽 앞의 대형금판 옆으로 이어지는 부분에는 장방형 금판2개→금침통으로 이어진다. 이로부터 대형 요패의 위치가 오른쪽 허리 옆쪽에 오는 것을 알 수 있고 곡옥류는 모두 앞 좌우에 배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패의 위치가 허리 옆쪽에 오는 것은 그 길이가 무릎 밑까지 내려오는 대형이니만큼 활동의 편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위치라고 생각하며 대형요패가 몸 앞쪽에 오는 것은 활동하기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했을 것이므로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IV. 교구(鉸具)와 사미(蛇尾)

1. 교 구

삼국시대에 사용된 교구들은 걸쇠와 축이 하나로 만들어진 T자형 걸쇠를 내부에 끼운 구조로 되어 있다. 다만 교구 앞부분의 형태에는 몇가지 종류가 발견되고 있는데, 앞 부분이 약간 둥근 형태로 된 것이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고 이 외에 당초문을 변형한 듯한 장식화된 교구들도 발견되고 있다.

2. 사 미

사미는 과대를 착용한 후 몸 앞쪽으로 늘어뜨리는 것이다.

삼국시대 사미 중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는 기본형태는 판금구를 2장으로 접어 겹쳐서 벌어진

13) 김원룡, 앞 책, p.136

14) 濱田耕作·梅原末治, 앞 보고서, pp.141~143.

15)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황남대총 북분 발굴조사보고서』, 1985, p.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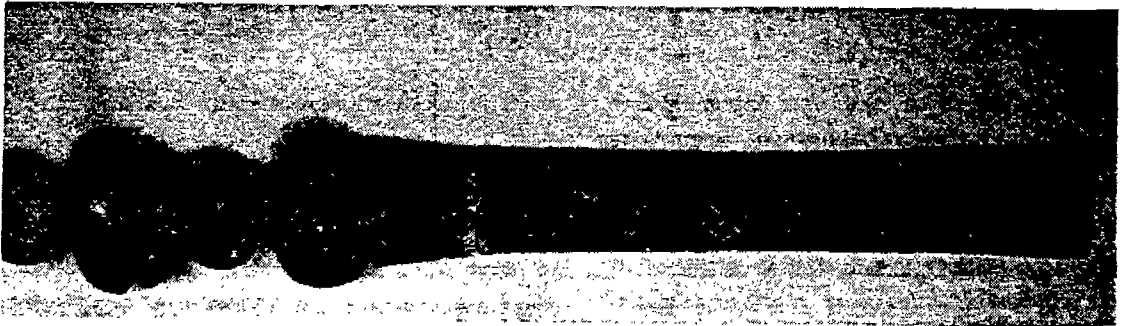
쪽에 락를 끼워 못으로 고정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 대를 끼우는 부분을 따로 만들어 다른 판금구와 경첩식으로 연결한 것도 있고 천마총 출토 은제과대의 사미처럼 완전 異形의 사미도 있다.

V. 과대의 문양과 제작방법

1. 문 양

(1) 脫化龍文

용문은 처음에 동물무늬에서 그 형이 변화되면서 파생되었다고 생각되고 있다. 이 용문은 전국시대에서 漢代로 넘어가면서 용의 몸체가 연장 변화되고 사지나 꼬리도 문양화되어 간다.¹⁶⁾ 삼국시대 과대 중 Ⅲ-1 유형으로 분류된 과에는 바로 이 脫化龍文이 투조되어 있다.



〈사진 1-2〉 무녕왕릉 출토 金製腰佩

2. 제작방법

삼국시대 과대의 제작방법은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먼저 심을 댄 포백이나 혁대로 만든 락를 안쪽에 대고 그 위에 과를 놓고 고정하는 것이다. 과를 락에 고정하는 데는 方形 과인 경우에는 보통 9개의 못을, 역십엽형 과인 경우에는 3개의 못을 이용한다. 교구는 과에 교구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

(2) 인동당초문

인동당초문은 식물문에서 변화되어 파생한 것으로 그 기원을 북방 유목민족 스키타이에서 발원하여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보고 있다.¹⁷⁾ 특히 백제지역인 공주 송산리 1호분 출토 과대에 투조된 문양과 경주 출토 금관총 금제과대에 투조된 문양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신라와 백제간의 교류를 확인할 수 있다.

(3) 기 타

鬼面文과 動物文이 이에 해당한다. 귀면문은 공주 송산리 2호분 출토 과대와 고령 지산동 39호분, 무녕왕릉 출토 금제 요패〈사진 1-2〉 등에 투조나 타출기법으로 표현되고 있다.

고 분리된 경우가 있다. 분리된 경우에는 과 뒷면에 삼각형 철판을 대어 못으로 교구와 고정시키고 있다. 사미는 앞서 살펴 본 대로 안쪽에 대는 포백대나 혁대를 삽입할 수 있도록 끝이 들로 벌어져 있고 이 사이에 락를 삽입한 후 못으로 고정하게 된다.

과판에 투조된 문양은 도안대로 과판을 도려낸 것이며 황남리 110호분과 같이 투조된 문양 주위

16) 맹인재, 〈고신라공예의 투작무늬에 대하여〉, p.144

17) 맹인재, 앞논문, pp.159~165.

김원룡, 『Art & Archaeology of the Ancient Korea』, p.355.

에 파상점열문을 시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에는 毛彫나 蹴彫기법¹⁸⁾을 사용한다.

이 밖에도 각종 요패가 제작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여 삼감기법이 사용되기도 하였고 천마총 요패와 같이 타원형 판을 만곡시켜 빛의 반사률도모하고 있기도 하다.

VI. 결 론

삼국시대 고분 출토 과대를 유형분류해 본 결과 크게 방형과판과 심엽형 수하부로 구성되는 I 유형과 역심엽형 과로 구성되는 II 유형, 異形 과로 구성되는 III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또한 각 과대에 베풀어져 있는 문양을 보면, 출토과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I 유형에는 그 기원을 북방 유목민족인 스키타이로 보고 있는 인동당초문이 시문되어 있고 III-1 유형에는 脫化龍文이, III-2 유형에는 동물문과 귀면문이 시문되어 있다. 다만 II 유형은 특별한 문양이 없고 鏤의 형태가 역심엽형인 특징을 갖고 있다.

연구대상 고분출토 과대들의 경우 각 유형이 전 시기에 걸쳐 출토되고 있어 특정 유형이 특정 시기에 출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각각이 함께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구려 지역의 경우 출토 과대가 脫化龍文을 투조한 유형에 집중되고 있고 나머지 하나도 晉代출토 과대와 유사하여 중국과의 연계성을 추측하게 하고 있고¹⁹⁾ 또한 백제와 신라지역에서 출토된 과대 중에는 투조된 문양이 동일한 것이 출토되고 있어 백제와 신라간의

제작방법의 연계성이나 전파경로를 추측케 하고 있다.²⁰⁾

또한 각 과대가 제작된 방법은 비교적 단순하여 심을 댄 포백이나 핵대로 만든 帶를 안쪽에 대고 그 위에 鏤를 놓고 고정하는 방법으로 제작되었으며 鏤를 帶에 고정시키는 데에는 못이 사용되었다. 또 각 과대에 베풀어져 있는 문양은 인동당초문이나 탈화용문의 경우에는 투조의 방법이 사용되었고 동물문이나 귀면문의 경우에는 打出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그 밖에 각 문양의 주위에 毛彫나 蹴彫기법을 이용한 波狀點列文 등이 시문되어 있기도 하였다.

한편 3형식으로 분류된 삼국시대 과대에는 각종 패식이 수하되어 있고 이들 패식은 원래 실용적인 기능으로 사용되었다고는 하지만 삼국시대 출토 과대의 경우에는 장식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각 패식은 이전에 패용하였던 실제 물건을 모방하기도 했겠지만 장식만을 위해 수하되기 시작한 장식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삼국시대 출토 과대를 유형분류하고 과대에 수하되는 각종 패식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과대의 변화과정이나 지역별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에는 연구가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료를 보충하여 과대를 통한 고분편년과 각국 간의 전파 경로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각종 패식의 기원지로 보고있는 북방 민족들이 사용했던 패식들을 살펴보고 그것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고 과대 제작 방법에 대해서도 더욱 면밀한 고찰이 요구된다.

18) 毛彫와 蹴彫는 칼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패이는 홈의 양에 따라 구별되는데, 蹴彫가 더 깊게 패인다고 볼 수 있다.

小林謙一, “金銅技術について”, [考古學論考]小林行雄博士記念論文集, 平沢社, 1982, pp.404~405.

19) 김원룡은 이를 진대과대의 수입품이라고 보고 있다.

김원룡, [한국고고학개설], 일지사, 1987.

20) 백제 송산리 1호분과 금관총 출토 과대의 문양이 동일하며 송산리 2호분의 獸面打出 鏤와 고령 지산동 39호 분 출토 과가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천마총 출토 異形 요패와 백제 무녕왕릉 출토 異形 과대의 표현 방법이 유사성을 나타내고 있다.

참고문헌

〈저서〉

- 김원룡, 『한국고고학개설』, 일지사, 1987
- _____, 『한국미술사』, 범문사, 1968
- _____, 『Art & Archaeology of Ancient Korea』, 태광출판사, 1986
- 沈從文 編著, 『中國古代服飾研究』, 商務印書館, 1992
- 原田淑人, 『漢六朝の服飾』, 東洋文庫, 1937
- _____, 『唐代の服飾』, 東洋문고
- 『中國歷代服飾』, 學林出版社, 1984

〈논문〉

- 맹인재, 〈고신라공예의 투작무늬에 대하여〉, 『고고미술』 150, 1981
- 윤선희, 〈삼국시대 과대의 기원과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1987
- 윤세영, 〈고신라 가야고분의 편년에 관하여—고분출토 관모를 중심으로—〉, 『백산학보』 제17집, 1974

〈보고서〉

- 경상남도, 『창녕 계성고분군 발굴조사보고』, 1977
- 경희대학교 박물관, 〈경주 인왕동 19·20호 고분 발굴조사보고〉, 『경희대학교 박물관 창간 제1책』, 1974
-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백제무녕왕릉』, 1991
- 국립박물관, 〈황오리 4·5호, 황남리파괴고분 발굴조사보고〉, 『국립박물관조사보고 제5책』, 1964
- 김재원·김원룡, 〈경주 노서리 쌍상총·마총·138호분 조사보고〉, 『국립박물관고적조사보고 제2책』, 1955
- 김재원·윤무병, 〈의성탑리고분〉, 『국립박물관고적조사보고 제3책』, 1962
- 김택규·이은창, 〈구암동고분발굴조사보고〉, 『영남대학교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2책』, 1978
- _____, 〈황남동고분발굴조사개보〉, 『영남대학교박물관고적조사보고 제1책』, 1975
- 동아대학교 박물관, 〈양산 금조총·부부총〉, 『고적조사보고서 제19책』, 1991
- _____, 〈창녕 교동 고분군〉, 『고적조사보고 제21책』, 1992
- 명지대학교 박물관, 『湫岩洞 C지구 고분군 발굴조사보고』, 1994
- 문화공보부, 〈경주 황오리 제133호, 황남리 151호 고분발굴조사보고〉, 『문화재관리국고분조사보고 제2책』, 1969
-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무녕왕릉 발굴조사보고서』, 1973
- _____, 『천마총 발굴조사보고서』, 1974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황남대총 남분 발굴조사보고서』, 1994
- _____, 『황남대총 북분 발굴조사보고서』, 1985
- 부산대학교 박물관, 〈김해 예안리 고분군 I〉, 『부산대학교 박물관 유적조사보고 제8집』, 1985
- 영남대학교 박물관, 〈황남동고분 발굴조사개보〉, 『영남대학교 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1책』, 1975
- _____, 〈구암동 고분 발굴조사보고〉, 『영남대학교 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2책』, 1978
- _____, 〈창녕 계성리 고분군—계남 1·4호분—〉, 『영남대학교 박물관 학술조사보고 제9책』, 1991
- 全榮來, 『전북유적조사보고』 上, 전주시립박물관, 1973
- 梅原末治, 〈慶州皇南里第九號墳皇吾里第十四號墳調査報告〉, 『昭和九年度古蹟調査報告 第一冊』, 소화12

ABSTRACT

The Study of the Gwathai at the times
of three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of the ancient belt, 'the Gwathai', especially in the times of three countries. For this purpose the Gwathai was classified as to the motif which was decorated on the plate of the Gwathai, and also another parts of the Gwathai were studied.

The Gwathai could be classified of three parts. The first, rectangular plate and the hanging part with heart motif, and the second, reverse-heart plate. The character of the third part was the specificity of the plate motif.

Also there was a hanging part at the Gwathai and it was organized with the diverse form. At first it was used for the practical purpose, and then later for the decorational purpose.

But this study could't reveal the chang channel of the Gwathai and the relation between region. This is the limit of this study. So more study is necessary to clarify this point.

- 濱田耕作・梅原末治, 〈慶州金冠塚と其遺寶〉, 『古蹟調査特別報告 第三冊』, 1924
- 野守健・小泉顯夫, 〈慶尙北道達城郡達西面古墳調査報告〉, 『大正12年度古蹟調査報告第一冊』, 1932
- 原田叔人, 〈慶尙北道慶州郡內東晉門里古墳及慶山郡清道郡金泉郡尙州郡竝慶尙南道梁山郡東萊郡諸遺蹟調査報告書〉, 『大正7年度古蹟調査報告第1冊』, 1922
- 有光教一, 〈慶州皇南里第82號墳, 第83號墳調査報告〉, 『昭和6年度古蹟調査報告第1冊』, 1935
- 조선총독부, 〈梁山夫婦塚と其寶物〉, 『古蹟調査特別報告 第五冊』, 1931
- _____, 〈公州宋山里古蹟調査報告〉, 『昭和二年度古蹟調査報告 第二冊』
- _____, 〈慶州皇南里第八十二第八十三號墳調査報告〉, 『昭和六年度古蹟調査報告第一冊』, 1941
- _____, 〈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調査報告〉, 『大正十三年度古蹟調査報告』

〈도 록〉

- 한국문화재보호협회, 『문화재대관』2, 1989
- 『한국미술전집』2, 동화출판사, 1975
- 한병삼, 『국보』1, 예경산업사, 1983